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30분 전 공동체 기도(묵주 기도, 성체 조배)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자선 송년의 밤**
일시 : 12월 28일(토) 오후 7시
티켓 : \$40
- **찬양, 치유 미사 <매월 셋째 주일>**
남부 뉴저지,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지역 연합 찬양, 치유 미사
일시 및 장소 : 12월 15일(일) 오후 4시, 체리힐 성당
*찬양, 미사, 안수 및 치유 예식, 친교
- **Sight & Sound Theater <공연 Miracle of Christmas>**
일시 : 12월 4일(수) 오전 10시 출발
참가비 : \$80 (티켓, 식사 포함)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제노베파 구역 : 오늘 미사 후 임 요셉 형제님, 김 노엘라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주소 : 2107 Sorrento Ct, Philadelphia, PA 19145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 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알립니다!

-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마리아** 구역입니다.
-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글로리아**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틸다** 구역입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사목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나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소성당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88번 임하소서 구세주여
제1독서	이사야서 2, 1-5
화답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제2독서	로마서 13, 11-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 마태오 24, 37-44
봉헌성가	215번 영원하신 성부
성체성가	163번 생명의 성체여
퇴장성가	92번 구세주 내 주 천주여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대림 제1주일 12월 1일	대림 제2주일 12월 8일	대림 제3주일 12월 15일
제1독서	김정숙 이사벨라	하국일 암브로시오	황선동 스테파노
제2독서	김희동 프란치스코	김재숙 제노베파	박민수 벨라도
봉헌자	최영숙, 김광대	문혜숙, 김성욱	백윤기, 허인선

오늘의 묵상

대림 시기를 맞이하여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뜨겁게 기다립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시대의 종말에 관한 이사야의 환시를 들려줍니다. 세상에는 평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지만 끊임없는 갈등도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평화를 멀리하고 많은 슬픔과 불행과 함께 고통을 자아냅니다.

주님께서서는 화해를 이루시는 분, 평화의 사자로 오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느님의 뜻, 곧 구원과 평화, 정의와 사랑의 길을 알려 주시려 오십니다. 하느님의 약속을 전하는 이사야는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하고 초대합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도 똑같은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절박합니다. 육과 육이 주는 쾌락을 따르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밤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관심이 없음을 지적하시며 그분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시대의 징표에 관심 없이,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거나 실천하려는 마음 없이, 그저 먹고 마시며 쾌락에 젖어 살았던 홍수 이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보인 행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본능과 사악한 경향에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방향, 곧 하느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언제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우리들의 기도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주일정성

< 11월 24일(일) >

봉헌금	\$.00
교무금	\$.00
감사헌금	\$.00
미사예물	\$.00
Total	\$.00